

남원 대강면 '섬진강 유채꽃 축제' 활짝

시, 18일 개막 26일까지 개최
가덕옛길 6만㎡ 노란꽃 군락
포토존 설치 등 볼거리 풍성



남원시 공무원과 대강면 주민들은 '섬진강 대강 유채꽃 축제'를 앞두고 유채꽃밭 조성 및 탐방로 정비 작업을 펼쳤다. <남원시 제공>

남원지역을 관통하는 섬진강에서 유채꽃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남원시에 따르면 대강면 주민들이 손수 공들인 유채꽃을 시민들에게 자랑할 '섬진강 대강 유채꽃 농업 경관 축제'를 18일부터 26일까지 연다.

대강면은 올해 1월부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자문을 받아 섬진강 주변 대강 가덕옛길 6만㎡(약 1만8000평)의 자연경관 단지에 유채꽃씨를 뿌렸다.

시와 주민들은 꽃망울이 피어오르기까지 유채꽃에 물을 주고 단지를 정비하면서 축제를 준비해 왔다. 시와 면민들의 정성에 보답하듯 노란 유채꽃은 군락을 이뤘다.

이와 함께 시와 주민들은 축제를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어보고자 섬진강 명품길 조성 및 마을별 돌탑 쌓기, 유채꽃밭 제초, 탐방로 정비 등을 함께해 왔다.

이와 함께 상춘객들의 추억을 담은 30여종의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성공적 축제 개최에 힘을 쏟고 있다.

시와 주민들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지난 7일 이장단과 기관·사회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채꽃 행사장 주변에서 화합행사를 갖기도 했다.

양규상 남원시 대강면 발전협의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대강면에서 최초로 유채꽃 축제를 준비했다"면서 "면민들의 한 땀 한 땀 정성 가득한 행사를 준비한 참여

형 축제인 만큼 유채꽃의 아름다움을 즐겨 달라"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고창읍성, 10~20대 한복 인생샷 '성지'

무료 의복대여소 운영...동문 등 포토존 젊은층 유명세

고창지역이 10~20대 젊은이들의 한복인생샷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읍성 관광안내소에 설치돼 운영 중인 무료 의복대여소가 SNS를 통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전통의복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의복대여소는 올해 고창읍성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의 중 하나로 기획됐다.

포토존 장소는 고창읍성 내 등양루(동문), 동헌(평근당), 팽중축립 등이 유명세

를 타고 있다.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년)에 의침을 막기 위해 축성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자연석 성곽으로 꼽힌다.

고창군 관계자는 "경복궁이나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입어볼 수 있는 전통의복(한복)을 고창군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에서도 입어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추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군산시, 시민체감형 SOC사업 발굴 추진

수송동 생활문화센터와 주차타워 복합화 등

군산시가 생활SOC 정부 추진 방향에 맞춰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을 발굴해 추진에 나선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설 간 시

너지 효과를 높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복합화를 위해 관련 부서 실무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6가지 복합화 모델사업을 발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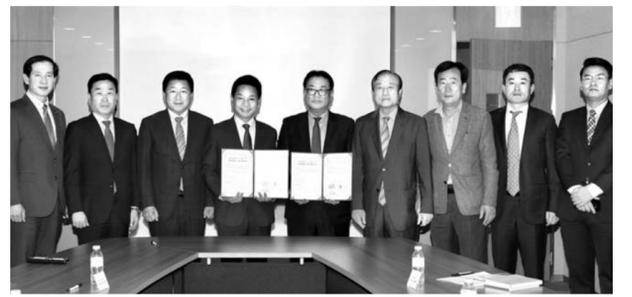
발굴된 모델사업은 ▲수송동 일원의 생활문화센터와 주차타워를 복합화하고 외벽을 미세면지 녹화벽으로 조성 ▲원도심에 K-POP 청소년자유공간 조성 ▲가족센터·여성인권센터·다함께돌봄센터가 어우러진 복합시설 ▲농업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농민을 위한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신규 조성 등이다.

김인생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지역 실

정에 맞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은 문화생활 소외지역 등에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굴한 사업에 대해 시청 27개 부서별 복합화 방안검토와 실행방안을 통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영암군, 전국 최대 유통기업 CY그룹과 MOU 체결 지역 농·축산물 유통·공급 상호 협력기로

영암군은 최근 서울 CY그룹 회의실에서 영암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유통을 통해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CY그룹과의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CY그룹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롯데그룹 유통매장에 농·축·수산물에 공급하는 주요 벤더업체로 불리다. 흥공, 대만, 일본 등 국외에서도 핵심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1972년 창립된 유통 전문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영암군은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지역농산물을 입점할 수 있게 돼 '농업강군'의 꿈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대동령상에 빛나는 매력한 우와 전남 10대 고품질브랜드쌀(총 16회)에 선정된 달마지쌀골드와 무화과, 대봉감, 멜론, 영암배 등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우수 농축산물을 선보일 계획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전동평 영암군수와 조정기 영암군의회 의장, 유나종 영암군의회 부의장, 그리고 CY그룹 최현열 명예회장 및 유통부문 김태화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영암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교육·홍보 강화 ▲지역 농·축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공동 브랜드 활용과 원활한 유통을 위한 상호 협력 ▲영암지역 농·축산물 유통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발전방향 협의 등을 합의했다.

군은 14일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CY그룹의 영암방문을 시작으로 22일 롯데슈퍼입점관련 실무협의인 서울방문을 통해 농축산물의 유통 판매망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전국 최대이자 최고 유통기업인 CY그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동학혁명 단초 '만석보 쉼터' 개장

익산국토청, 30억 투입 동진강·정읍천 일원 조성

동학농민혁명의 단초가 된 정읍시 만석보 일대에 조성된 '만석보 쉼터'가 개장했다.

쉼터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30억원 을 들여 동진강과 정읍천이 만나는 지점의 만석보 부근에 2만3361㎡ 규모로 만들었다.

광장과 3개의 정자, 주차장, 화장실 등을 갖췄다.

인근에는 동학 농민군의 집결지인 백산성,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적지 등이 있다.

주변에 27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과 내장산에서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81.6km 길이의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주민 여가 및 생활체육 공간으로 주목 받을 전망이다.

만석보는 1892년 고부 군수 조병갑이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쌓은 저수지로, 과도한 수세를 매기는 데 분개한 농민들이 들고일어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임야 급매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 문의. 010-6834-7400